

1년 분쟁 순천 '스카이큐브' 무상 기부채납 가닥

시 제출 대한상사중재원 권고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오늘 본회의 인수단 구성 활용방안 모색키로

1년여 분쟁에 휘말렸던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열차인 '스카이큐브'가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순천만 스카이큐브 무상 기부채납 수용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물론 12일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해당 상임위의 검토를 거친만큼 수용안 의결이 확실시된다.

11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순천만 스카이큐브 무상기부채납 수용 동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행차위는 동의안 의결 이유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5차례 심리와 2차례 조정을 통해 마련된 최종 권고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순천시에 불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에서 권고안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순천시의 일부 배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등

을 고려했다"며 "다만 권고안에 누락된 사항이나 순천시에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29일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스카이큐브를 무상 기부채납해 직접 운영하도록 최종 화해권고안을 마련, 양측에 통보했다.

에코트랜스는 이 안에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14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중재원에 통보해야 해 순천시의회에 '무상기부채납 수용 동의안'을 제출했다. 순천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민사회단체 등과 토론회 등을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인수단을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는 포스코와 순천시가 2011년 실시협약을 맺고 30년간 운영하기로 한 소형경전철(PRT) 사업이다.

포스코는 610억원을 투자해 2014년 5월 순천만 국가정원역~순천문화관역 4.62km구간 레일 위에서 삼각형 모양의 무인궤도차인 '스카이큐브' 40여



만성적인 적자로 지난해 운영을 중단한 순천만 '스카이큐브'가 순천시에 무상 기부채납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의 상업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1월8일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를 이유로 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3월15일 시를 상대로 협약 해지에 따른 1367억원의 손해배

상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다.

순천시도 스카이큐브 시설 철거비용 등 200억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멸종위기 야생화 복주머니란 등 지리산 노고단 정상부에 '활짝'



지리산 노고단 정상부에 복주머니란(사진) 등 각종 야생화가 활짝 피었다.

11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에 따르면 노고단(1507m)은 대표적인 아고산대 지역으로, 이 지역만의 특색 있는 식물들이 구상나무, 쥐오줌풀, 큰앵초 등과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복주머니란을 만나볼 수 있다. 복주머니란은 꽃의 모양이 마치 주머니를 연상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꽃은 분홍색으로 5-6월에 핀다.

사람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해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노고단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희귀한 식물이다. 쥐오줌풀은 꽃과 뿌리에서 쥐의 오줌냄새가 난다고 하여 특이한 이름을 가지게 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관광 5가지 테마로 즐기세요

시, 여행패턴 변화 맞춰 안전·비대면·자연·로컬·웰니스 키워드 재구성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패턴의 변화에 맞춰 광양관광 자원을 5가지 테마로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5가지 테마는 ▲자연놀이테마 ▲드라이브 스트루 ▲모락모락 캠핑 ▲야경 스팟 ▲농촌체험휴양으로, 안전·언택트(비대면)·자연·로컬·웰니스 등의 키워드를 반영했다.

자연놀이테마는 백운산&둘레길&자연휴양림, 서천변, 섬진강, 배알도&수변공원 등으로 수려하고 청정한 경관을 감상하며 사색과 등산, 걷기 등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드라이브 스트루는 푸른 섬진강과 남해바다를 달

릴 수 있는 섬진강 자전거길과 푸른 광양만을 가로질러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의 장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순신대교가 있다.

모락모락 캠핑은 개별 또는 가족 단위로 각종 체험과 놀이로 특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서천변 캠핑장, 하조오토캠핑장, 백운산휴양림 야영장, 섬진강끝마을, 느랭이골자연휴양림 등으로 글램핑, 카라반 등의 다채로운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야경스팟'은 한국관광공사 야간경관 100선에 선정된 구봉산전망대 외에도 느랭이골 별빛축제, 해오름유교, 무지개다리, 해달별전망대, 서천변과

마동 음악분수쇼 등은 찬란한 경관조명과 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봉강햇살촌마을·형제의병장마을·하조산달팽이마을, 옥룡 도선국사마을, 진상 백학동권역마을, 다담 메아리마을·고사마을 등에서는 각종 프로그램과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험휴양'을 즐길 수 있다.

이화업 광양시 관광과장은 "코로나19가 재발견한 광양관광자원을 잘 활용해 코로나19 위기를 광양관광 발전 기회로 만들어가겠다"며 "빈틈없는 관광지 방역 태세를 갖추고, 안전여행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독려해 건강한 여행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권오봉 여수시장 등이 지난 10일 여수 안심초등학교에서 '투명우산'을 전달했다. <여수시 제공>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으로 지키세요

여수시, 50개 초교에 2700개 전달

여수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저학년 어린이의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0개 초등학교에 투명우산 2700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른보다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차량 운전자들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투명우산을 제작해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에게 배부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투명우산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30% 가까이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미려 꾸민 어린이들이 매년 교통사고로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고자 투명우산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초등 저학년의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배치와 옐로 카펫 설치, 아동 성장발달과 올바른 생활 관리 능력 형성을 위해 아동 수저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초등 복지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고흥지사 부정부패 척결 특별교육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는 최근 고흥지사 대회의실에서 8개 지구 공사감독 및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날 참석자들은 청렴·윤리 이행강서 교환, 안전·품질·소방 교육, 현장 예로서화 공유 시간을 가졌다.

송기정 고흥지사장은 "현장 대리인과 공사 감독들이 결의대회를 통해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며 "공사현장의 품질·안전·환경·소방 관리로 재해를 막고 공사를 적기에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